

내 인생과 학문의 始源的 자서전

이제는 부끄럽기만 한 책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金烈圭

서강대 교수·국문학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문학과 만남은 언제 비롯하는 것일까. 그리하여 '문학 체험'이라고 이름지를 만한 것을 처음으로 갖게 되는 것은 언제일까.

그것은 동화나 동요로 비롯하는 것일까. 친구들과 나누어 갖는 놀이 노래, 따위도 우리들의 문학체험의 첫 단계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던가.

이런 물음이나 自問 속에 어느 정도는 이미 답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들은 달리 또 자장가를 들어야 한다. 요람의 노래야말로 우리들의 성장과정에서 만나는 첫 문학체험을 형성한다.

아무리 젓먹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이미 감각 신경이 있고, 사물과 주변에 대한 지각이 주어져 있다. 그러기에 젓먹이의 귀를 간지럽히고 마음을 부드럽혔을 그 '근원적인 문학' (근원적 음악이기도 한)은 하나의 잊지 못할 기념비적 경험으로서 우리들 속 깊은 곳에 언제나 내재해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하는 것과는 별개다.

근원적 문학체험의 무의식적 작용

필자가 「한국민속과 문학연구」를 출간하고자 했을 때, 이런 근원적 문학체험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당당히 새삼스레 과거를 회고했을 때, 위에서 말한 뜻의 근원적 문학체험이 스스로도 모르게 작용하고 있음직하다고 짐작을 해 본 것뿐이다. 적어도 자신의 문학적 지향 혹은 문학적 감각에는 늘 그만한 무엇인가가 힘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해 두고 싶은 것이다. 아무리 낮게 평가해도 그것은 일종의 遠因 내지 간접적 동기 노릇을 하고 있었을 법한 것이다.

이같은 遠因을 더욱더 증폭시킨 것이 다름 아닌 프레이저의 「황금가지」와 마리노우스키의 「주술, 과학 그리고 종교」 등이다. 그리고 이들이 동기가 되어 일깨워진 인류학 및 민속학에 관한 관심이 큰 몫을 다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한데 참 묘한 것은 중학교 시절에 우연히 슈리만의 전기를 얻어 읽은 사실이 프레이저며 마리노우스키를 읽고 있는 사이사이의 기억 속으로 떠오른 일이다. 트로이 유적지 발굴로 유명한 슈리만의 얘기 가운데에서도 “대지는 나의 도서관이요 삶은 나의 독서용 안경”이니 하는 귀절이 프레이저며 마리노우스키를 읽는

이 책은 필자에게 인생의 자서전이자 배움의 자서전을 겸하고 있는 셈이 된다. 또 달리는 어릴적 이래 동요·동화에 부쳐서 간직한 감정·정서적 자서전과 학문하면서 갖게된 知的 자서전이 한데 융합된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중간중간에 아주 신선하게 회상되곤 했던 것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학문적 자기정비' 같은 것이었는지 모를 일이다. 슈리만-프레이저-마리노우스키의 선을 이으면 민속학에 스스로 기울게 된 과정이 잡혀질 듯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슈리만을 읽을 무렵,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이던 무렵, 거의 시기를 같이 해서 읽은 「아라비아의 로렌스」마저 이 과정에 끼어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슈리만과 로렌스의 활동무대가 다같이 중근동이었던 것 이외에도 슈리만의 고고학과 로렌스의 현실참여 사이에는 자신의 이념을 위해 스스로를 무섭게 불태우는 뜨거운 정열이 불을 뿜고 있었다는 까닭이라고 생각된다.

인간에게 있어서만이 아니라, 인간문화에 있어서 보다더 근원적인 것보다도 원초적인 것에 관한 호기심은 이렇게 해서 줄기차게라기보다 간헐적으로 필자 내부에서 길러졌던 것이다.

지금 우리들 자신의 삶이며 생활, 그리고 문화를 이렇게 저렇게 있게 만든, 이러저러하게 존재하게 만든, 우리들이 쉽게 보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근원적·원초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은 지금도 학문활동 한쪽에서가 아니고, 거의 중심부쯤에 엉겨 있다.

민속학 관심은 어릴적 할머니 '이바구' 속에서

문학에 대한 호기심·동경은 워낙 어릴때부터였지만, 거기 뒤늦게 프레이저나 마리노우스키로 말미암아서 민속학 내지 문화인류학에 관한 관심이 덧붙여졌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 자장가에서 비롯해서 동요, 동화, 옛날얘기 (경상도 말로 '이바구'라고 하는)에 이어진

초기의 문학들이 애시당초 민속학이기 때문이었다.

어느 집안에서나 다 그러리라고 믿지만 필자도 장손으로 자라면서 '어머니의 아들'로 보다는 '할머니의 아들'로 자랐고 그러면서 할머니에게서 하고 많은 이바구를 들으면서 아주 어린 철을 보낼 수 있었다. 그게 필자의 '민속학의 입사' 내지 '민속학에의 입사'였다. 빨강 병, 파랑 병 그리고 흰 병을 던지면서 마귀의 손에서 그에 도주하는 데 성공하는 오뎉 얘기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거나 강의 중에도 민담에 얘기가 미칠 때면 즐겨 분석의 대상으로 삼곤 한다.

아주 꼬마적에 할머니에게서 세가지 빛깔의 병 얘기를 들은 것이 오늘날 학문의 세계에 까지 이어져 있는 것이다. 그것을 필자는 삶의 행복이자 배움의 행복이라고 믿고 있다.

말하자면 「한국민속과 문학연구」라는 책을 펴내기까지에는 그때까지의 나의 유·소년시절과 청·장년 시절이 통틀어 한데 어울린 것이다. 삶의 내력과 배움의 내력을 한데 어울려서 책 한 권 쓸 수 있는 보람을 누린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년처럼 가슴이 뻐다. 말하자면 「한국민속과 문학연구」는 필자의 인생의 자서전이자 배움의 자서전을 겸하고 있는 셈이 된다. 또 달리는 어릴적 이래 동요·동화에 부쳐서 간직한 감정·정서적 자서전과 학문하면서 갖게 된 지식 자서전이 한데 융합된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유년과 소년과 청장년이 손잡고 한 권의 책을 썼다고 생각해 보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이다. 책의 내용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책이 써지는 과정을 두고 하는 말일 뿐이다.

「한국민속과 문학연구」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지만 민속과 문학 가운데 어느 쪽인가 하면, 민속 쪽에 더 크게 비중이 주어졌다. 민속신앙, 신화, 민간습속 그리고 구술문학 등에 걸친 민속에 관한 언급이 문학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 어쩌면 문학은 부차적인 뒷받에 못지나고 있다고 말해 볼 만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것은 인류학적 비평 내지 민속학적 비평이 문학의 원형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쏟은 나머지 '원형이론'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과 무관할 수 없다. 그것은 때로는 발생론적인 관심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아 보다 더 구조론적인 관심일 수가 있다. 민속학적·인류학적 사

실이 문학을 탄생케 하는 모태 노릇을 하고 있다는 발상보다는 전자가 후자의 구조론을 위한 기층내지 '메타'의 자리에 있다는 발상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의례절차, 신앙의 관념체계, 혹은 俗信, 속담 등이 그때그때 문학작품의 거꾸집 노릇을 하면서 동시에 문학을 위한 뮤즈 구실과 소재 구실을 겸해서 하게 되지만, 민속문학사의 흐름이 남달리 길고 깊게 문학사의 저류에서 흐르고 있는 한국의 경우는 그 점이 더욱 강조될 수 있는 것이다.

학문세계 조화 위한 씬없는 촉발제 역할

그러나 이 책은 필자 나 자신과의 사이에서 되풀이된 물음, (그것은 인간적인 물음이기도 하고 학문적인 물음이기도 했지만) 내가 누구냐 하는 물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냐 하는 물음에 대한 접근의 일부라는 의의를 갖고 있다.

그것은 내게서 원초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들 겨레에게 있어서 원초적인 것을 찾아 떠난 어슬픈 걸음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 책을 출간할 무렵까지는 직접 경험한 현지답사가 별로 많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민속에 속할 것이 주로 다루어진 것이지만 그로써 오히려 '역사예의 귀속'을 부분적으로나마 이룩해 본 것이라고 여겨진다.

아무튼 새삼 돌아보아 부끄러운 책이다. 형식이나 비교민속학 내지 비교종교학 영역에 들 부분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역시 생소하고 문학과 민속을 하나의 언어 내지 기호로 묶어내는 일도 제대로 한 것 같지 않다. 문학과 민속이 따로따로 곁들고 있다는 自責을 하게 되면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지금껏 민속과 문학을 동일한 '메타'를 지닌 구조물로 포착하려는 작업, 나아가서 문학·민속·놀이, 그밖의 인간생활과 문화제도까지 서로 같은 기호체계를 나누어 가진 '텍스트' 내지 '디스크스'로 보아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거니와 그런 노력이 되풀이될 적마다 「한국민속과 문학연구」가 씬없이 촉발제가 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런 노력이 계속되노라면, 그래서 열매를 맺노라면 「한국민속과 문학연구」에 부치는 지금의 부끄러움을 조금은 덜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달래고 있다.